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사)생명존중 뇌건강치과 AI연구소 대표

한 해를 매듭짓는 12월이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는 이념 간의 갈등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혐오의 언어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거리마다 켜진 성탄의 불빛을 마주할 때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현실 대신 온기를 갈구하고, 전두엽은 소중한 이에게 건넬 '선물'을 고민하게 된다.

지난 11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사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한 오 헨리(1862-1910)의 <크리스마스 선물> 뮤지컬 속 짐과 멜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오른다.

가난한 짐은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위해 시계를 팔아 빚을 쌌고, 멜라는 남편의 시계를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샀다. 빗질할 머리카락도, 줄을 매달 시계도 사라졌기에 그들의 선물은 무용지물이 된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뇌 회로를 재구성한 고도의 '사랑의 연금술'이었다.

필자는 지난 5월부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1천원 밥상으로 실천하는 <사> 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지부 어머니 한글교실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연금술사들을 만나고 있다. 바로 여든이 넘은 연세에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니들이다. 일주일에 두 번, 굽은 허리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글을 익히는 풍경은 경이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XI

- 사랑은 존재를 꽂피우는 연금술(2) 한글교실

롭기 그지없다. 한글은 어금니(ㄱ), 혀(ㄴ), 입술(ㅁ), 치아(ㅅ), 목구멍(ㅇ)의 모양을 본뜬 초성 5음을 기본으로 한 자음과, 천지인(天地人)의 철학이 담긴 모음을 결합해 완성된다. 할머니들이 입을 열어 글자를 발음할 때마다 구강의 구조와 우주의 섭리가 공명한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 체계를 습득하고 손 근육의 미세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화된 뇌 세포를 깨우는 인내로 할머니들은 '편안함'과 '익숙함'이라는 머리카락을 과감히 잘라내셨다. 글을 읽을 수 없었던 답답함을 딛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다.

니체는 <처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글자를 모른 채 살아온 할머니들의 지난 삶은 거대한 '혼돈(Chaos)' 그 자체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혼돈을 극복하려는 열망을 불태워 마침내 한글이라는 '춤추는 별'을쏘아올린 것이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육사(청포도), 윤동주(서시), 정현종(방문객), 도종환(흔들리며 피는 꽃), 김춘수(꽃), 이성부(벼), 정호승(수선화에게), 마종기(우화의 강), 조동화(나 하나 꽂피어), 나태주(풀꽃) 등 주옥같은 시들을 소개하고 함께 쓰고 읽으며 자존감을 키우도록 했다.

학습을 마무리하는 지난 주, 장시화 시인의 시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를 함께 낭송하고 2025년을 기억하며 감사 일기를 직접 쓰도록 했다. 지난 1년 중 고마운 일을 기억하며 문장으로 완성해 가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은 짐의 시계줄보다, 멜라의 머리카락보다 더 값진 보석이 됐다. 그 찰나, 할머니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죽처럼 터지며 노화를 극복할 새로운 신경 회로가 구축됐을 것이다. 이를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에서는 '존재의학'이라 부른다.

구강악안면에서 일어나는 씹고, 삼키고, 호흡하는 생존 활동과 말하고, 노래하고, 웃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감성 활동이 뇌 건강을 자극하듯, 배움과 사랑은 영혼에 혈류를 공급해 존재를 각성시킨다.

80세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며 뇌 속의 혼돈을 극복하고 창조의 별을 임태하는 과정은, 니체가 말한 낙타의 인내와 사자의 포효를 거쳐 마침내 아이처럼 자유롭게 창조하는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갈등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 이슈 속에서도 사랑으로 존재를 꽂피우는 드라마가 곳곳에서 피어나기에, 삶 속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된다.

12월, 쇼윈도에 진열된 화려한 상품보다 더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 짐과 멜라처럼, 그리고 한글 교실의 할머니들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닐까!

신개념 뇌건강 치의학의 본질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고단한 환자와 라포(Rapport, 상호신뢰와 공감)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울림을 가지려는 태도 속에 있다.

짐과 멜라의 엇갈린 선물이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되었듯, 우리가 나누는 진실한 마음의 선물은 사랑이라는 존재를 꽂피우는 가장 위대한 연금술이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의 성공요건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이재명정부는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국정과제 123건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역량 제고'(52번 과제)에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설시, 제3자 지방일괄이양 법 제정 등의 주민자치권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 주민선택(주민추천) 읍면동장 임용제는 기초단체장이 읍면동장 임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단체장의 읍면동장 임시권을 일정 정도 주민과 나눠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지역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곧바로 실시 가능한 제도로서 주민들의 마음을 향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자치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조속한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지자체들이 도입한 바 있으나 시행과정의 어려움도 많아 중도 포기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안착을 시켜야 할 과제인 만큼, 본 제도의 장·단점과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알

아본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2014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래 세종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읍면동에서 시행됐으나 최근 세종시, 논산시, 올주군, 고성군, 제주도 등은 부정적인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주민 참여 및 만족도 증대, 소통 및 협력 증진,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장점을 있는 반면 민원 부담, 업무 과정,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공무원 참여 저조, 법령에 근거한 '선출'이 아닌 단체장의 '임명권' 내에서 이뤄지는 '추천'이라는 제도적 한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 주민자치를 도입 육성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전국 3천500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운영은 1천641곳,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가 1천655곳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윤석열정부 3년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주민자치 운영도 제각각을 면치 못하고 해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읍면동장 직선제나 읍면의 자치단체화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의 전면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 중에 있고, 그밖에 여리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도는 일선 읍면동의 주민중심행정, 주민자치활성화, 민관협치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등 마을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무리없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도입 운영과정의 다소의 문제들은

바디캠은 경찰의 '방패', 국민의 '감시의 눈'

독자투고

전국 경찰관에게 바디캠 보급이 본격화됐다. 현장 경찰관들은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물론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바디캠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사후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줄어들고,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 환경

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현장의 위험 상황과 시민과의 접촉 과정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바디캠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투명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 바디캠의 정식 도입은 경찰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써 기록을 남기는 치안은 더 책임 있고, 더 신뢰받는 치안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피출소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本土說

국가인권위는 광주의 정상화 요구에 즉시 답해야

광주시 전·현직 상임·비상임 인권옹호부스만들이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 안팎에서 정상화와 보장체계의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에 편승한 편향적인 판단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을 응호했다. 소수자를 차별하는 모습까지 도마에 올랐었다.

안 위원장이 책무 수행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가 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급 설문에 따르면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윤석열방어권 안건을 인용의 결한데 대해선 90% 가까이가 부적절이라고 응답했

다. 매우 이례적인 평가다. 전직 위원장들과 간부, 퇴직자들도 가세했다. 최근 2025년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선 위원장이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입장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의 근본적 쇄신이 급하다. 전·현직 인권옹호부스만들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바라면서 인권위의 제도적 전환과 위원장 사퇴를 제기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위에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해 온 광주의 존엄한 요구다. 안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으로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시민단체 요청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규범인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지키며 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밝혔다. 인권위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초심을 회복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안 위원장의 마지막 소임으로 보인다.

환율 충격 최소화 민생경제 안정 선제 대응 급하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광주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파인애플 1kg 가격은 전년 대비 47.1%나 뛰었다. 바나나도 34.5% 상승했다. 전남 역시 오름세가 뚜렷하다. 환율과 연동돼 단가가 상승하고 물류비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름값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의 휘발유는 12월 셋째주 1당 1천727.5원으로 재차 하락했지만 1천70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지역은 1천749.8원으로 전주보다 짧끔 내렸다. 소비자가 부피적으로 느끼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물가 등장이 심상찮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4% 상승해 10월, 11월 연속으로 연고점을 찍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수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민족구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격졌다. 매번 호들갑만

떨었을 뿐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담습해선 안 된다. 안일한 인식은 곤란하다. 물가가 유통되면 민생이 훼들린다. 서민의 삶이 힘들어진다. 수입선 다변화와 사전 비축 등으로 가격 불안 요인을 잡는 것까지 환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상황이다. 경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위기를 해쳐나갈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아침을여는 詩

평형수

강경화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물을 신는다

누구도 볼 수 없는 배 밑바닥 깊숙이

먼 향해 가리앉지 않게 지탱해줄 적당의 무게

흔들려도 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물

사랑 슬픔, 그리움, 혹은 후회 같은

세상은 늘 출렁이고 나는 자주 기운다

오늘을 살아가는 균형을 잡아 줄

당신이란 이름을 가슴에 채운다

기우는 나를 지탱하는 내 안의 평형수

(시조시집 '그늘 속 얼룩무늬', 다인숲, 2025)

[시의 눈]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배는 기울게 된다. 자주 기울면 전복될 위험성이 높다. 이때 평형수를 넣는다. 배의 무게가 커져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된다. 그제야 배의 균형점이 맞게 된다. 살아가는 모습은 외줄 타기와 같다. 살아가는 동안 외줄에서 내려올 수 없

다. 하루하루 살얼음 견듯 미끄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한다. 허방 딛지 않으려고

바싹 물입하며 균형 잡기를

시도한다. 자칫 미끄러지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치열한

인생이란 무대. 그것은 외줄

타기를 방불케 한다. 너른 바다를 떠가는 한척의 자

그만 배. 그 또한 인생을 말하고 있다. '사랑 슬픔, 그리움, 혹은 후회 같은 세상은 늘 출렁이고 나는 자